

교육의 전쟁책임에 관한 고찰* - 청일·러일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

이 권 희**

· 目 次 ·

- | | |
|------------------------|-----------------|
| I. 머리말 | IV. 청일·러일전쟁과 교육 |
| II. 일본 근대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 | V. 맺음말 |
| III. 일본 근대교육의 군국주의적 성격 | |

Key Words: 국가주의 교육(Nationalism Education), 군국주의 교육(Militarism Education), 교육칙어(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충군애국(loyalty and patriotism), 교육의 전쟁책임(War Responsibility of the education)

<요지>

근대 일본에 있어 1890년 10월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 발표 이후 교육의 역할은 90%가 넘는 취학률을 배경으로 국정교과서를 통해 학동들에게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단히 각인시키고, 그 정점에 있는 천황의 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절대적 권위와 만세일계의 황통보(皇統譜)를 담보로 신성불가침성을 강조하며 ‘국체에 멸사(滅私)하는 충량한 ‘신민’을 키우는 것이었다.

본고는 ‘근대일본의 교육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설정하고 이른바 ‘교육칙어

* 본 논문은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동북아역사재단 NAHF-2018-기획연구-21)

**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 일본 근대교육사상 전공.

(教育勅語)’를 중심으로 교육칙어 발표 이전과 이후의 교육 상황을 교육의 국가주의와 군국주의(軍國主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를 조감(鳥瞰)하고, 메이지 초기 일본의 근대교육이 개인의 입신과 출세라는 지극히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에서 천황과 국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근대 일본인들의 공적 사유체계의 형성, 다시 말해 충군애국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체사상의 형성이라는 분열적 사유체계의 형성과정의 고찰을 통해 메이지 후기 교육의 전쟁책임에 대해 추급해 보았다.

1. 머리말

‘교육(教育)’을 자의(字意) 그대로 해석하자면 ‘가르쳐 키우다’라는 뜻으로, 인간을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몸과 마음 양 면에 의도적으로 작용을 미치는 영위라 할 수 있다.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지식을 늘리고 기능을 가르치고 인간성을 키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계발(啓發)하는 영위라 정의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은 각 시대마다 요구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만들어내고, 특정 시대의 특정한 교학이념은 학교제도를 통해 교육의 내용을 강제한다. 따라서 교육은 인간의 자아와 가치관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을 강하게 지배하는데, 특히 유년기에 학교교육을 통해 주입된 공적 가치체계는 개인의 일생을 통해 특정적 사유와 행동을 통제하는 ‘규범’으로 작용한다. 교육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창출하는 효율적 기재라 할 때 교육정책이 국가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당연하다. 메이지 시대뿐만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전쟁 시기에 이르기까지 나라의 운영을 책임졌던 최고 책임자들이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국민교육에 지대한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특정 시대의 교육이념과 제도,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관한 연구는 그 시대와 사회를 고찰하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한다. 특히 국가와 민족을 강하게 의식하는 만드는 메이지기 국민교육에 관한 고찰은 비단 당대뿐만 아니라 20세기, 나아가 21세기 극우·보수 성향의 일본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근대교육과 전쟁’이라는 커다란 주제를 설정하고 1890년 공포되었던 ‘교육에 관한 칙어(勅語)’(이하 ‘교육칙어’라 약칭함)를 중심으로 교육칙어 공포 이전과 이후의 교육이념과 제도를 근대교육의 국가주의, 군국주의(軍國主義)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이를 조감(鳥瞰)해 보고자 한다. 1872년 학제의 실시와 더불어 서구 사회의 보편적 교육이념을 채용함으로써 자아의 독립과 입신출세라는 사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편으로 천황과 국가를 강하게 의식하는 분열적 사유체계의 형성, 다시 말해 충군애국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체사상의 형성이라는 근대 일본인들의 공적 사유체계의 형성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해 교육의 전쟁책임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한다.

교육의 전쟁협력 또는 전쟁책임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할 때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학교나 교사들이 담당했던 개별적이고도 직접적인 전쟁협력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치렀던 대외 전쟁 당시의 각종 기록물, 특히 교사 혹은 학생들의 수기나 회고록의 분석을 통해 교육의 전쟁책임에 대해 실제적으로 분석해 나가는 방법이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전쟁 당시의 수기나 회고록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비해 그 대상을 메이지 시대의 청일전쟁·러일전쟁 시기로 한정했을 때는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메이지기의 교육과 전쟁책임에 대한 고찰을 교사 혹은 학생들의 수기나 회고록의 분석을 통해 파악하는 것은 자료의 빈곤에서 오는 제약으로 인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요하는 지난한 과제가 될 것이다. 다른 방법의 하나는 근대교육 제도 자체에 내재해 있는 국가주의적·군국주의적 성격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본 근대교육의 시작과 전개를 국가주의 또는 군국주의와 관련지어 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메이지기 보통교육의 전쟁책임 내지는 협력에 관한 고찰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종래의 근대일본의 교육제도사, 혹은 교육사상사에서는 메이지기 국민교육의 교육이념에 대해서는 지육(智育)과 덕육(德育)의 길항, 혹은 메이지 초기의 지육 중시에서 중·후기의 덕육 중시라는, 지육과 덕육의 이항대립 식 구조로 이를 파악해 왔다. 필자 또한 이와 같은 설정에 이견을 갖고 있지는 않으나

본고에서는 다소 관점을 달리하여 메이지기 일본의 공교육제도에는 처음부터 국가주의·군국주의적 요소가 내재하고 있었으며, 지육이든 덕육이든 국민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름 아닌 충군애국 사상을 핵심으로 하는 국체사상의 형성에 있었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국체사상이라는 일본인들의 특정적 사유체계는 메이지 후기 일본사회가 군국주의국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 마치 종교와도 같이 일본인들의 신체와 정신을 지배했음을 밝히고자 한다.

II. 일본 근대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

메이지 신정부가 1872년 일본 최초의 교육에 관한 법령인 학제(學制)의 반포·시행을 통해 근대교육의 체제를 정립하고 ‘국민개학(國民皆學)’이라는 슬로건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통교육을 시행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교육을 통해 고급인재의 양성과 교육된 양질의 노동력 확보함으로써 식산흥업과 부국강병(富國強兵)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즉, 메이지 신정부의 핵심 관료들은 교육을 국가 부강을 위한 기재로 인식했던 것이다.

원래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부강으로, 일반 인민이 무식빈약의 경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왕정유신의 미명(美名)이 결국 공명(空名)에 속하게 되고, 세계 부강의 각국과 대치하는 목적도 반드시 그 알맹이를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일반 인민의 지식진보를 기대하여, 문명 각국의 규칙을 취사하여 서서히 전국에 학교를 진흥시키고, 크게 교육을 펼치시는 것이 오늘날의 급무라 생각합니다.¹⁾

1) 메이지 신정부의 핵심 요인 가운데 이와쿠라 도모미와 함께 교육정책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또 한 명의 인물이 바로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이다. 기도는 실제로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1874년 1월부터 5월까지 문부경(文部卿)의 자리에 올라 직접 교육행정을 총괄하기도 했다. 기도는 메이지 원년(1868)년 12월, 인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1833~77)는 메이지 원년(1868)년 12월, 보통교육의 진흥에 대한 건언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전국에 학교를 설치해 교육을 시행해야 함을 주장했다.²⁾ 즉 교육은 국가 부강을 위한 길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872년 학제의 그 어디에도 ‘국가를 위한 교육’이라는 언급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를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은 “종래의 연습의 폐”, 즉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나쁜 습관이라고 까지 단정 짓고 있다. 학제는 ‘국민개학(國民皆學)’이라는 슬로건하에 교육을 통해 갖추게 되는 능력 여하에 따라 입신출세(立身出世)가 가능한 능력주의라는, 당시 서구 사회의 보편적 교육이념을 채용함으로써 신분제 해체의 결과 특권적 지위를 상실했던 무사계층을 위무함과 동시에, 일반 서민이나 농민에게까지 공평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던 지극히 개인적이며 실용적인 교육관을 명시하고 있다.³⁾

민의 부강이야말로 나라의 부강의 기초이며 사람들이 무식해서는 유신이 공명(空名)으로 끝나버릴 것으로 인민의 지식진보를 위해 문명 각국의 지식을 취사선택하여 전국적으로 보통교육을 하루 속히 시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보통교육의 진흥을 급무로 해야 하는 대한 건언서안’을 조정에 제출했다.

2) 普通教育の振興につき建言書案

臣準一郎謹て奉建言候。王政維新未出一年東北之反徒盡伏其罪。從今勉て武政之專壓を解き、内は人民平等之政を施し、外は世界富強之各國え對峙する之思食、斷て毫も不容疑儀と奉恐察、微臣も夙に廣大之朝旨を奉体し、不顧驚鈍盡微力、熟將來之形勢を推考仕候に、一般之人民無識貧弱にして終に今日之体面を不一變時は、譬二三之英豪朝政を補贊仕候共、決し不能振起全國之富強して、勢王政も亦不得不陷專壓。元來國之富強は人民之富強にして、一般之人民無識貧弱之境を不能離ときは王政維新之美名も到底屬す空名、世界富強之各國に對峙する之目的も必失其實。付ては一般人民之智識進歩を期し、文明各國之規則を取捨し徐々全國に學校を振興し大に教育を被爲布候儀、則今日之一大急務と奉存候。今日より端緒を被爲開候とも、固より不盡多少之歲月ば不能舉其實は当然之道理にて、匆卒文明各國之形樣而已を模擬いたし候は必良凶に有之間敷、却って國家人民之不幸を醸成候も難計と奉存候。宜速に御決定被爲在度奉仰願候。誠惶々々頓首再拜。戊辰十二月二日木戶準一郎敬白。 이권희 『국가와 교육』, 케포이북스, 2017. p.45.

3) 유신 초기에는 사족(士族)과 농민들의 반란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정부는 재정을 주로 지조(地租)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주(地主)들을 보호하고 우대하는 정책을 폈고

메이지 신정부의 관료들은 서구 선진 제국과 일본의 차이가 ‘문명’에 있음을 발견했다. 문명개화론자의 대표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를 비롯한 당시의 계몽사상가, 교육사상가들 역시 다양한 루트를 통해 경험한 서양을 일본사회에 소개하였는데, 서양 제국의 ‘문명’은 다름 아닌 학문과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일본 최초의 근대적 교육법령이었던 학제가 전통적 지배학문이었던 한학의 공리허담을 배격하고 서양의 실학주의 사상에 근거한 개인주의적·실학주의적 교육관을 표명하고 있음은 유신 초기라는 시류에 비추어 볼 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을 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학제의 서문이라 불리는 ‘피양출서(被仰出書)’가 후쿠자와 유키치의 계몽사상에 영향 받은바 크다는 것은 이미 정설이 되어 있다. 피양출서는 이른바 관판(官版)의 『학문의 권장(學問のすす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⁴⁾

메이지 신정부가 학제 반포를 통해 제시했던 교육이념은 사민평등(四民平等)의 원칙하에 취학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수신(修身)하고, 지식을 넓히고 재능과 재예를 신장시킴으로서 출신성분과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누구나가 입신출세를 할 수 있다는 지극히 개인적이면서도 이기적인 교육관이었다. 또한 종래와 같이 학문이 일부 사람들만의 것도 아니며 국가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자립이나 사적 이익 추구라는 근대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근대교육이 문명개

이로 인해 종종 지주에게 투기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반면 하층 농민들의 생활은 점점 궁핍해져만 갔는데 이에 각지에서 봉기(一揆)가 끊이질 않았다. 하루아침에 일 자리를 잃게 된 무사계급들의 상실감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실제로 42만 호가 넘는 화족(華族)·사족(士族)의 대부분이 유신 정부에서 관직을 갖지 못했다. 1874년의 중앙과 지방의 관리 총수 2만 1486명 가운데 화족·사족 출신은 1만 6,897명(약 79%)인데, 그것은 화족과 사족 전체 호 수의 약 4%에 지나지 않는 수였다. 고토 야스시 외, 이남희 옮김 『천황의 나라 일본』, 예문서원, 2006, p.158.

4) 土屋忠雄 『明治前期教育政策史の研究』, 講談社, 1962, p.84. 1872년 2월 간행된 『학문의 권장』에서는 학문을 함으로써 “귀인(貴人)도 될 수 있고, 부인(富人)도 될 수 있다”며 학문의 목적을 개인의 입신출세에 두고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학제의 교육이념과 상응하는 것이었다.

화를 통한 국가의 부강이라는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제에서 ‘국가’는 완벽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한다.

첫째, 민중의 자발적 취학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강이라는 대의명분’보다는 ‘입신출세’라는 개인적 효용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기적 관심에 호소하는 편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라는 것이다.⁵⁾ 둘째, 봉건적 학문관을 불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종래의 신분제에 의한 관념의 틀에서 해방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근대 국민국가의 성원이라는 자각을 개인의 입신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려 했다는 것이다.⁶⁾ 셋째, 국가재정과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보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교육비의 국가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를 위한 교육이 아닌 개인의 입신출세를 위한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것인데, 그러한 편이 취학률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견해이다. 그런 반면에 학제는 국가를 위한 학문·교육을 부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혀 개인주의적이지도 않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⁷⁾ 이는 피양출세의 개인주의·입신출세·치산창업은 궁극적으로 ‘식산창업’의 개념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개인의 입신출세는 결국 국가의 부강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학제의 교육이념이 지극히 개인주의적·실학주의적 교육관에 경도되어 있다고 본다. 메이지 초기의 ‘문명개화’ ‘서구화 만능’이라는 당시의 시대풍조를 고려할 때 이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하여 표면적

5) 尾形利雄 「明治初期國民教育理念に關する考察」, 『ソフィア』 第20卷 第3号, 上智大學, 1971.2, pp.18-19.

6) 國立教育研究所編, 『日本近代教育百年史 1』, 1973, pp.75-76.

7) 다케나카 테루오는 후쿠자와가 1869년 2월 마쓰야마 도안(松山棟庵)에게 보낸 서간 안에서 “일신 독립해야 일가가 독립하고, 일국이 독립하고, 천하가 독립한다. 그 일신을 독립시키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다. 먼저 지식을 여는 데 있다(一身獨立して一家獨立、一國獨立、天下獨立。其一身を獨立しむるは、他なし。先づ智識を開くなり)”라는 부분을 가지고 후쿠자와의 교육사상 또한 결국에는 국가의 부강을 강하게 의식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竹中暉雄 『明治五年 學制』, ナカニシヤ出版, 2013, pp.72-86.

으로는 개인주의적·실학주의적 교육관에 경도되어 있어 보이지만 이것 또한 결국엔 국가 부강으로 이어지고, 후쿠자와 유키치의 교육사상 또한 결국에는 ‘국가 부강’ ‘국가 안태’를 위한 포석이었다는 식의 해석에는 동의할 수 없다.⁸⁾ 이와쿠라사절단(岩倉使節團)에 동행했던 기도 다카요시 등 정부 요인들은 자신들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제도가 만들어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로운 학제를 반포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가를 위한 교육관이 부재했다는 점에서 1872년 학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반대의 입장이었고, 결국 반포된 지 불과 7년 남짓 만에 학제가 폐지되었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물론 학제가 폐지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지만 그중 하나가 학제의 국가주의적 성격의 부재였음은 부정할 수 없다. 분명 학제에서는 개인의 입신출세를 강조하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이기적 가치를 교육의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한마디로 학제에서 국가는 소거되어 버렸다. 학제 반포 이전에도, 그리고 학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신한 교육령에서도 ‘국가’는 그 어떤 교육가치보다도 우선하고 있었음에도 왜 학제의 교육이념에서는 자취를 감추고 있을까. 어차피 학제 제정에 참가했던 인사들이 학제를 기초하는 과정을 기록한 의사록(議事錄)이 발견되지 않는 한 그 어떤 가설도 상상과 추측의 역을 벗어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학제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교육의 국가주의적 성격을 건강부회 식으로 주장하기보다는 분명 일본의 근대교육은 처음부터 강하게 국가와 군대를 의식하며 출발했다는 명제를 설정하고 학제 이외의 다른 정황과 언설들의 분석을 통해 메이지 초기 교육의 국가주의적 혹은 군국주의적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III. 일본 근대교육의 군국주의적 성격

근대국가 형성시기에 있어 군대는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치안유지와 대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더구나 막부 말기 서양의

8) 이권희, 전계서, p.83.

무력시위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맞본 메이지 신정부가 근대적 군사집단을 조직하고 국민군의 양성에 주력했던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메이지 신정부의 3대 개명정책 중 하나인 징병제(徵兵制)가 학제의 반포와 때를 같이 하여 시행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천황의 이름으로 징병에 관한 칙명이 내려지고 이를 받아 태정관(太政官)의 징병고유(徵兵告諭)가 1872년 11월 28일 태정관포고 제379호로써 발표되었다. 이를 근거로 1873년 1월 10일 ‘징병령(徵兵令)’이 시행되었다.⁹⁾ 학제의 국민개학주의와 마찬가지로 ‘국민개병(國民皆兵)’의 원칙하에 만 20세의 남자를 징집하여 3년간 육군에 복무하도록 하는 근대적 군사제도가 스타트했다. 이에 징집되는 병사들에게는 병사에게 필요한 기본소양과 능력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으며 이를 위해 국민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됨은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문부성이 학제를 제정함에 즈음하여 태정관에게 제출한 품의서(伺文), 오늘날의 입법취지(취의)서를 보면, 국가의 부강안강(富強安康), 즉 국가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부국강병·식산흥업을 꾀하는 정책의 하나로써 교육이 유용, 또는 필요하므로 인민에게 취학을 독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보인다.¹⁰⁾ 또한 부현에서 ‘피양출서’를 받아 학제 반포 후 약 10년간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학문의 필요성과 취학을 강조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발표한 취학고유(就學告諭)에서도 품의서의 취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의 독립과 번영, 즉 식산흥업과 부국강병을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발상은 앞에서 언급한 기도 다카요시 뿐만 아니라 당시의 위정나나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일반적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¹¹⁾ 이렇게 본다면 근대적 학교제도를 출범시킴으로써 정부가 목표했던 국민개학의 목적은 비록 학제에서 표방하고 있는 교육이념이 개인주의·공리주의적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기는 했지만 그 본질은 오히려 국가통일·국력의 확충강화를 통한

9) 이후 징병규칙에 따라 매년 1월 10일은 신병의 입영일이 되었다.

10) 荒井明夫 『近代日本黎明期における 就學告諭』の研究』, 東信堂, 2008.

11) 柿沼肇 『國民の「戦争体験」と教育の「戦争責任」』 近代文芸社, 2005, p.160.

국가주의 사상의 주입에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병사들에게 필요한 기본지식과 소양을 전수하기 위함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본의 공교육사상 ‘소학교(小學校)’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1868년 12월에 개설된 시즈오카번(靜岡藩)의 누마즈병학교(沼津兵學校) 부속 소학교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거기에서는 데라코야(寺子屋), 향교(鄉校)와 같은 전 시대의 교육기관과는 다른 교육활동이 전개되었다. 교과목은 『박물신론(博物新論)』 『지리전지(地理全誌)』 『영환지략(瀛環志略)』 『손자(孫子)』 등의 서사강론(書史論講) 이외에 영어나 프랑스어 중 하나를 선택해 회화나 문법 수업이 이루어졌다. 또한 만국지리, 당시 구리계략(究理概略)이라 불린 물리나 화학, 천문, 만국사, 경제설대략(經濟說大略) 등을 배웠으며, 대수(代數), 기하(幾何), 삼각(三角) 등과 같은 수학과목과 실제측량 등의 연습이 이루어졌다. 나아가서는 보병학교(步兵學校), 포병학교(砲兵學校), 축조장교(築造將校, 오늘날의 공병학교) 등의 각 분과로 나누어 근대적·과학적 과목을 교육하고 훈련하였다. 소학교는 그야말로 병학교를 입학하기 위한 예비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으며, 소독(素讀), 학서(學書), 산술(算術), 지리, 체조, 강역(講釋), 청문(聽聞)의 6개 과목을 본과로 삼고 여기에 검술, 수련(水練, 오늘날의 수영)을 수의과목(隨意科目)으로 두었다.¹²⁾ 이처럼 비록 학제 반포 이전이기는 하나 일본에서의 근대적 소학교의 발상(發祥)이 서양식 병학을 가르치기 위한 병학교에 부속된 소학교였다는 것은 일본 근대교육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파악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79년 다나카 후지마로(田中不二麻呂)의 주도에 의해 학제를 대신한 ‘교육

12) 당초의 명칭은 도쿠가와케병학교(德川家兵學校) 부속 소학교. 누마즈병학교는 프랑스식 군대 조직을 목표로 스루가(駿河國) 누마즈의 누마즈성 내의 건물을 사용하여 개설되었다. 입학 자격은 14세부터 18까지의 도쿠가와케의 가신이 원칙이었다. 초대 학장은 니시 아마네(西周). 1870년 병부성(兵部省)의 직할이 되었고, 1872년에는 정부의 육군병학교(陸軍兵學寮)와 통합되어 도쿄로 옮겨갔다. 부속 소학교는 현재의 누마즈시립 제1소학교의 전신이다. 누마즈병학교는 일본 근대교육의 발상이라고도 여겨진다. 樋口雄彦 『旧幕臣の明治維新—沼津兵學校とその群像』, 吉川弘文館, 2005 참조.

령(자유교육령)이 반포되었다. 다나카는 1871년 이와쿠라사절단의 일행으로 서양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귀국한 후 재차 1876년 유학생 감독관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각 주의 교육제도를 둘러보고 귀국했다. 총 47조로 이루어진 교육령에서는 소학교의 수학연한을 학제의 정규과정 8년에서 4년까지 단축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실제 취학의무는 그 4년 가운데에서 16개월 이상이면 된다고 이를 더욱 완화하였다. 또한 교육행정의 면에 있어서는 학구제(學區制)와 독학국(督學局)을 폐지하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위원이 직접 학교를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며,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또한 지방의 특성에 맞춰 각각의 교육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다나카는 미국 식 자유주의 교육의 이식에 힘썼다. 그러나 당시 지방자치가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교육의 자치,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일반 인민들은 이해하지 못했으며, 서남전쟁(西南戰爭)으로 인한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해 소학교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곳이 속출했다. 이는 아동의 취학을 저하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880년 교육령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

1879년 메이지 천황은 호쿠리쿠(北陸) 도카이(東海)지역 순행(巡幸)이 있은 후 교육에 관한 시찰의견을 당시 내무경(內務卿)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와 문부경 테라지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제출하였다. 이를 골자로 하여 ‘교학성지(教學聖旨)’가 공포되는데, 교학대지(教學大旨)와 소학조목 2건(小學條目二件)으로 이루어진 교학성지의 내용은 유신 이후 일본의 근대교육이 서양의 실학적 교육사조에 경도되어 있음을 비판하고, 대안으로써 ‘인의(仁義)·충효(忠孝)·애국심(愛國心)’ 등의 유교적 윤리를 중시하는 ‘덕육(德育)’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¹³⁾

13) ‘教學ノ要仁義忠孝ヲ明カニシテ智識才藝ヲ究メ以テ人道ヲ盡スハ我祖訓國典ノ大旨上下一般ノ教トスル所ナリ然ルニ輒近專ラ智識才藝ノミヲ尙トヒ文明開化ノ末ニ馳セ品行ヲ破リ風俗ヲ傷フ者少ナカラス然ル所以ノ者ハ維新ノ始首トシテ陋習ヲ破リ知識ヲ世界ニ廣ムルノ卓見ヲ以テ一時西洋ノ所長ヲ取り日新ノ效ヲ奏スト難トモ其流弊仁義忠孝ヲ後ニ徒ニ洋風是競フニ於テハ將來ノ恐ルル所終ニ君臣父子ノ大義ヲ知ラサルニ至ランモ測ル可カラス是我邦教學ノ本意ニ非サル也故ニ自今以往祖宗ノ訓典ニ基ヅキ專ラ仁義忠孝ヲ明カニシ道德ノ學ハ孔子ヲ主トシテ人々誠實品行ヲ尙トヒ然ル上各科ノ學ハ其才器

교학성지(敎學聖旨) 공포의 배경에는 1878년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 암살을 계기로 정부의 강력한 리더가 부재한 호기를 틈타 전통유학과 존황사상을 합체시킨 교학이념을 세우고 천황의 친정(親政)을 도모하고자 했던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를 위시로 한 황도파(皇道派) 세력의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¹⁴⁾ 막말(幕末) 이래 줄곧 유교주의 교학이념을 통해 황도 이데올로기를 확립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던 황도파 세력의 시도는 정권의 실세였던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고와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명과 관료들의 반대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다.¹⁵⁾ 그러나 마침내 교학성지의 발표와 개정교육령의 공포를 통해 ‘황도주의 교육’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한다.

개정교육령에서는 수신과목이 필두교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수신교육의 강화를 통해 전통적 유교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차원의 교육이념이 국민교육의 전면에 등장했다.¹⁶⁾ 개정교육령 이후의 국민교육에서의 덕

ニ隨テ益々畏長シ道徳才藝本末全備シテ大中至正ノ敎學天下ニ布滿セシメハ我邦獨立ノ精神ニ於テ字内ニ恥ルコト無カル可シ’ ‘교학성지’는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http://www.mext.go.jp> 의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인용.

14) 모토다 나가자네,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 등 천황 측근 세력은 일본의 정치가 성지(聖旨)에 의한 것도, 민(民)에서 나오는 것도 아닌 일부 관리에 의한 권력독점과 전제(專制)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우려하며 ‘천황친정(天皇親政)’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호기를 노리고 있었다.

15) 이른바 궁정과, 혹은 황도파라 부르는 천황과 천황의 시강(侍講)이었던 모토다 나가자네를 중심으로 하는 그 주변 세력들은 학제의 실학주의 사상은 물론이거니와 당시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던 구화만능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갖고 있었다. 이에 천황은 모토다를 통해 그 대책을 강구케 하였고 이를 받아 모토다는 1979년 8월인가 9월경에 교육의 개량을 통한 풍속 교정(矯正)에 대한 천황의 하문을 이토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토는 1879년 9월 이른바 ‘교육의(教育議)’라는 상표문을 통해 현재의 혼란은 커다란 사회변동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음으로 ‘구시대(舊時)의陋習(陋習)’으로 돌아가지 말고 개화정책을 성공리에 완수해야 하는 것이 급무라 하여 이를 일축하였다. 이토는 일단 풍속의 폐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은 교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변(世變)에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토는 덕육의 내용을 정부의 손에 의해 통제하는 것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모토다는 ‘교육의부의(教育議附議)’를 통해 이에 반론을 제기했다. 이토와 모토다 간에 벌어졌던 이른바 ‘교육의논쟁’이다. 이토의 ‘교육의(教育議)’와 모토다의 ‘교육의부의(教育議附議)’의 전문은 山住正己編 『教育の体系』 日本近代思想大系6(岩波書店, 199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 중시는 1879년 메이지 천황의 명의로 발표된 ‘교학성지’와 무관하지 않다. 이 교학성지는 후술하는 ‘교육칙어’의 원형이다. 이 시점에서 메이지의 개명과 관료들이 유신 이후 줄곧 고수해 왔던 교학이념, 즉 지육(智育) 중시의 국가주의 교육 방침을 고집할 수 없었던 것은 1874년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에 의한 ‘민선의원설립건백(民選議院設立建白)’을 계기로 불붙기 시작한 자유민권운동(自由民權運動)에 대한 민중교화책으로서 유교주의적 도덕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교학성지의 발표, 그리고 이와 연동하는 형태로 개정교육령이 반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882년 ‘육해군 군인에게 내리시는 칙유(勅諭)’, 이른바 ‘군인칙유(軍人勅諭)’가 발표된다.¹⁷⁾ 칙유 전문(前文)에서는 “짐은 너희들 군인의 대원수이다(朕は汝ら軍人の大元帥なるぞ)”라 하여 천황이 군에 대한 통수권을 갖고 있음을 명기하고 있다. 이어서 “하급자가 상관의 명령을 드는 것은 실은 곧 나의 명령을 듣는 것이라 명심하라(下級の者が上官の命令を承ること、實は直ちに朕が命令を承ることと心得よ)”고 하면서 군인에게 충절(忠節)·예의(禮儀)·무용(武勇)·신의(信義)·검소(質素)의 다섯 가지 덕목을 설유하는 주문이 오고, 성심껏 이것들을 준수·실행할 것을 명령하는 후문이 이어진다. 자유민권운동의 기세에 눌러 입헌제 정치를 약속했던 메이지 정부는 ‘군인칙유’의 발표를 통해 군대를 직접 천황의 통솔 하에 둬으로써 그 어떤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통수권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정치라는 테두리 밖에 군대를

16) “小學校ハ普通ノ教育ヲ兒童ニ授クル所ニシテ其學科ヲ修身讀書習字算術地理歴史等ノ初歩トス土地ノ情況ニ隨ヒテ野書唱歌体操等ヲ加ヘ又物理生理博物等ノ大意ヲ加フ殊ニ女子ノ爲ニハ裁縫等ノ科ヲ設クヘシ但已ムヲ得サル場合ニ於テハ修身讀書習字算術地理歴史ノ中地理歴史ヲ減スルコトヲ得”. 개정교육령 제3조는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b_menu/hakusho/html/others/detail/1317967.htm 검색일 2018.9.30)의 ‘學制百年史 資料編’에서 인용.

17) 니시 아마네(西周)가 기초하고 후쿠치 겐이치로(福地源一郎)·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야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에 의해 가필·수정되었다. 하사 당시 서남전쟁(西南戰爭)·다케바시사건(竹橋事件)·자유민권운동 등의 혼란한 사회 정세에 따라 설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군부에 동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가라앉히고 정신적 지주를 확립할 의도에서 작성되었다고 한다.

위치시킴으로써 군사에 대한 정치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해 버렸다. 이로써 군은 천황의 군대가 되었다. ‘군인칙유’는 ‘교육칙어’와 더불어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종료 시까지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중핵으로써 근대 일본인들의 특징적 사유체계 형성에, 그리고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군인들의 공적 사유를 지배하는 핵심 원리로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큰 힘을 발휘하게 된다.

IV. 청일·러일전쟁과 교육

1885년 말, 내각제 시행 이후 이토 히로부미 내각은 국회개설 및 대일본제국헌법 제정으로 상징되는 근대국가의 틀을 만들어 간다. 이토 내각의 초대 문부대신 자리에 오른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보통교육과 고등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교육령을 대신하여 학교 종별로 ‘소학교령(小學校令)’·‘중학교령(中等學校令)’·‘사범학교령(事犯學校令)’·‘제국대학령(帝國大學令)’의 네 개의 개별 정령(政令)을 반포한다. 모리의 교육정책은 ‘군인칙유’의 발포라는 정치와 군사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 전개되었다. 1880년대 최고의 실권자였던 이토히로부미는 유교도덕을 기반으로 하는 교학정책에는 반대의 입장이었다. 불평등조약 개정 등과 관련해 서구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갔던 이토는 메이지 시대의 대표적 서구주의자 모리 아리노리를 문부대신으로 임명해 1880년 이후 교육의 유교주의로부터의 탈각(脫却)을 꾀하였다. 모리의 교육 개혁은 이토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모리는 학정을 실시함에 있어 일본의 근대화와 국민도덕의 강화라는 두 가지 교육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천황제’에 주목했다. 전 시대의 유교주의적 덕육 중시의 황도주의 교육에는 동조하지 않고 서구 사회의 통합 기제로 작용하는 신(神)의 존재에 착목하여 기독교의 신을 천황으로 치환(置換)함으로써 신생국가 일본이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의식의 통일을 국민교육을 통해 실현하려 했다. 또한 교육정책에 있어서의 천황의 위치를 자리매김 하기 위해 주요 교육법령은 모두 ‘칙령(勅令)’에 의한 체제를

구축해 갔다. 이른바 ‘교육의 칙령주의’이다. 이렇게 해서 군사와 교육을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도 같이 둘 다 정치의 테두리 밖에 위치시킴으로써 형태적으로는 천황이 이를 직접 통치하게 되었다.¹⁸⁾

또한 모리는 병식체조를 비롯하여 ‘어진영(御眞影)’이라 불리는 천황 부부의 사진을 전국 학교에 배부하고 국가 경축일인 기원절, 천장절, 시원제, 신상제(神嘗祭), 신상제(新嘗祭), 등과 1월 1일 원단(元旦)에는 의식창가(儀式唱歌)를 부르게 하는 등 어진영 배례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의식을 제정하였다. 모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가에 대한 절대적 복종,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상징인 천황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통해 당시의 신도주의적 황도주의 교육과는 이질적 국가주의 교육을 지향했다. 그러나 모리에게 있어 천황은 ‘국가’ 그 자체가 아니라 애국심 형성을 위한 하나의 기재(器材)에 지나지 않았었다. 모리는 서구사회의 국민 통합의 기재인 기독교에서의 신을 천황으로 치환해 국가의 상징인 천황을 중심으로 전 국민의 의식이 ‘국가’라는 상위개념으로 통일됨을 기대했던 것이지 천황 자체가 국가라는 국체주의 사상을 견지하고 있지는 않았다.¹⁹⁾

한편에서 1880년 이후 모토다 나가자네의 『국교론(國教論)』(1884), 니시무라 시게키(西村茂樹)의 『일본도덕론(日本道徳論)』(1887)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의 『덕육방법안(德育方法案)』(1887) 등 유교주의·복교주의적 입장의 덕육론 또한 활발히 개진되면서 1880년대 후반에는 도덕교육과 교육의 근본방침을 둘러싼 이른바 ‘덕육논쟁’이 벌어지게 된다. 그런 와중에 1889년 대일본제국헌법 반포 당일 모리가 암살을 당하고, 모리 암살을 계기로 교육의 근본방침을 둘러싼 혼란이 벌어졌다. 이는 지방의 교육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지방장관들은 특히 도덕교육을 어떠한 기준을 갖고 실시해야 할지를 고민하였다.

1890년 2월 19일부터 열린 지방장관회의에서 지사 일동은 당시의 문부대신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에게 ‘덕육함양의 의미에 대한 건의(德育涵養ノ義ニ付建議)’를 제출하고 덕육의 내용에 대해 정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²⁰⁾ 이를 계기로 하여 아마가타 아리토모(山縣有朋) 수상, 요시카와 아키

18) 柿沼肇, 前掲書, p.166.

19) 이권희, 전제서, p.254.

마사(芳川顯正) 문부대신, 이노우에 고와시 법제국 장관, 모토다 나가자네 추밀고문관(樞密顧問官) 등의 협력에 의해 1890년 10월 ‘교육에 관한 칙어’, 이른바 ‘교육칙어’가 등장한다. 야마가타가 교육칙어 제정에 열성적이었던 배경에는 국회개설 후 예상되는 민권파(民權派)의 세력증대에 대한 견제, 그리고 당시 조선의 이권을 둘러싸고 청국(淸國)과의 대립이 고조되어 가는 가운데 천황의 권위로서 국민의식의 통일을 꾀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 교육칙어는 그야말로 어진영과 함께 학교에 배부된 천황의 ‘분신(分身)’이자 교육의 ‘본존(本尊)’이었다.²¹⁾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근대국가로서의 체제를 완성하고 서구 열강과 대등한 위치로 올라설 수 있었던 것에 전쟁의 역할이 컸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1894년의 청일전쟁과 1904년의 러일전쟁은 국가가 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교육은 이러한 목적 실현을 위해 자발적 국민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통합된 이데올로기 형성의 장으로 변질되어 갔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육칙어’가 있었다. 1881년 개정교육령 반포 이후 그 구체적 학습지도요령 지침으로 발표된 ‘소학교교칙강령(小學校教則綱領)’에서는 소학교의 역사교육은 학제 이후 일본사와 함께 『만국사략萬國史略』(조선사는 없음)이란 타이틀로 함께 가르쳐왔던 세계사를 폐하고 일본역사만을 가르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역사교육을 일본사만으로 한정시킨 것은 역사교육을 통해 만세일계의 황통의 연면성을 강조함으로써 일본국과 그 군주인 천황에 대한 절대적 ‘충군애국’ 정신의 함양하고자 함이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유·평등·박애의 정신을 슬로건으로 민중이 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세계사의 흐름은 오히려 방해가 되었던 것이다.²²⁾ 여기에 자유민권운동에 대한 견제라는 노림수 또한 무시 할 수 없었다.

20) 건의서의 내용과 교육칙어의 원문, 그리고 그 작성과정에 대해서는 줄고 「근대 일본의 도덕교육에 관한 일고찰-메이지 전기 교육사상의 변용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7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12를 참조 바람.

21) 安藤忠, 前掲論文, p.50.

22) 이권희, 전계서, p.290.

청일전쟁 이전에도 보신전쟁(戊辰戰爭)·서남전쟁(西南戰爭) 등의 내전이 있었지만 전쟁을 위한 교육이 특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보신전쟁(戊辰戰爭)과 서남전쟁(西南戰爭)은 이른바 직업군인들에 의해 수행된 전쟁으로 일반인들이 전쟁에 관여할 여지는 없었다.(물론 서남전쟁의 경우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평민들이 관군으로 편성되기는 했었다) 그런 의미에서 메이지 전쟁과 교육과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검토하려 할 때 청일전쟁·러일전쟁은 획기적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청일전쟁 발발 이전 메이지 정부는 학교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새로운 조선관을 주입하려 했다. 1893년 금항당(金港堂)에서 출판한 『소학교용 일본역사(小學校用 日本歷史)』는 당시 교과서 검정제도 하에서 발행된 대표적인 역사 교과서이다. 이 교과서의 제1장은 서언으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과 일본 민족의 비교를 통해 일본이 얼마나 문명화되고 지혜가 발달했는지를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2장은 진무천황(神武天皇), 제3장은 아마토타케루(日本武尊), 제4장은 신공황후(神功皇后)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배열은 1903년 국정교과서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소학교용 역사교과서 체제의 원형으로써 주목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제4장의 신공황후(神功皇后)에 대한 기술이다. 채 한 장에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분량 속에 황후가 규슈(九州)의 구마소(熊襲)를 정벌했다는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고 그 안에 삼한정벌(三韓征伐)의 이야기가 나온다. 구마소는 일단 아마토타케루에 의해 정벌을 당해 복속을 약속했음에도 그 세력이 아직 건재해 신공황후는 배후에 있는 신라·백제·고려 삼한(三韓)을 정벌하러 나선다. 이를 당시의 교과서에서 ‘삼한정벌’이라 기술하고 있다. 삼한정벌의 직접적인 계기는 일본의 지배하에 있던 임나(任那)를 신라가 자주 공격을 해 이에 대한 응징으로써 황후가 직접 정벌에 나선다고 되어 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주지하는 바와 같다. 조선에 대한 침략의 정당화이다.

1902년 교과서 채택을 둘러싸고 회사 측과 교육관계자들 간에 부정한 거래가 적발되어 전국적으로 157명이 검거된 ‘교과서의혹사건(教科書疑獄事件)’을 계기로 1903년 국어독본·수신·일본역사·지리 교과서에 대한 국정제가 결정되어 이듬해인 1904년 국정교과서가 발행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직전의 시기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모든 학교에서 학습자에게 동일한 교과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습 내용에 행정기관, 즉 국가의 특정 의지가 여과 없이 반영되고, 그것이 사회나 역사교육에 나타나면 극단적 자국중심주의 사상을 형성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자유로운 역사관에 기초한 국가관을 갖기보다는 맹목적으로 국가에서 강제하는 역사관만을 가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편협하고 편중된 자국중심주의 사관에 지배당하게 되는 것이다. 1904년부터 1909년까지 사용된 일본 최초의 국정 역사교과서 『소학 일본역사(小學日本歴史)』에서는 1886년 이후 대부분의 검정교과서에서 ‘신대(神代)’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의 조상신이자 최고신인 ‘아마테라스오카미(天照大神)’를 역사의 출발점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성은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시까지 이어진다. 이는 신화와 사실(史實)의 혼동이라는 비합리적 역사관 주입이 교육의 현장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에 의미하며, 메이지 천황의 조상으로서의 ‘아마테라스오미카미’는 ‘건국의 체제, 황통의 무궁(建國ノ体制皇統ノ無窮)’이라는 국체관념을 주입하기 위한 절호의 소재로 활용되었다.

또한 정부는 청일전쟁 당시 전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애국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충용미담(忠勇美談), 이른바 군국미담을 만들어 신문 등에 특필하게 하였으며, 나중에는 소학교용 수신교과서에도 이를 게재한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육군 이등졸(二等卒) 기쿠치 쇼헤이(木口小平)의 미담이었다. 기쿠치는 보병 제21연대의 나팔병으로 1894년 7월 29일 성환(成歡) 전투에서 왼쪽 가슴에 관통상을 입고 전사를 하는데 관통상을 입고서도 진군의 나팔을 계속 해서 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후 이 극적인 이야기는 군가로 만들어져 불리기도 했으며 그 후에는 소학교의 수신교과서에 게재되기도 했으나 이는 애국심을 양양(昂揚)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였다.²³⁾

메이지 신정부는 학교 교육에 창가 과목을 포함함으로써 합창을 통한 대동단결의 정신을 강화하고, 특히 메이지 후기에 들어서 역사상의 영웅과 청일·러일전쟁을 겪으면서 당시의 군국미담(軍國美談)이나 전쟁영웅 등을 소재로

23) 山住正己 『戦争と教育』, 岩波書店, 1997, p.18.

한 창가를 보급한다. 근대 일본의 교육과정에 창가를 도입한 원래의 목적은, 노래를 통해 ‘지각심경’을 활발히 하며 정신을 쾌락하게 하고,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즐겁게 함과 동시에 선한 심성을 분기케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메이지기의 창가 교육은, 전기의 ‘정조’를 중심으로 하는 덕목교육에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충군애국’사상의 주입과 전의고양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어 갔다. 1881년의 ‘소학교교칙강령’의 발령 이후, 수신·역사교육 등과 마찬가지로, 창가는 주로 천황에 대한 직접적인 칭송이나 천황에 충성을 다한 역사적 인물 등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다수 만들어지고 교습되었다.²⁴⁾ 이러한 경향은 이후 만들어진 다양한 창가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 청일전쟁을 전후로 해서는 ‘충군애국’과 ‘전의고양’을 위해 전쟁을 소재로 한 ‘군국미담’과 전쟁영웅을 소재로 한 노래들이 더해져 갔다.

大和男兒
 我君のためには
 身をすてゝつとめ
 我國のためには
 家もすてゝはげみ
 あめ あられふりくる
 彈丸なかをおかし
 いなづまのきらめく
 太刀のもともおぢず
 「ますらたけをこれぞ
 これぞ ますらたけを
 やまと男兒 これぞ
 これぞ、やまと男兒」

일본 남아
 내 주군을 위해서는
 몸 바쳐 섬기고
 내 나라를 위해서는
 가정도 버리고 진력한다
 비바람 몰아치는
 탄환 속을 뚫고
 번개 번뜩이는
 칼날도 두려워하지 않는
 대장부다움,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대장부다움만을
 일본 남아여, 이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일본 남아로다

24) 이권희, 전계서, p.295.

1901년 『유년창가(幼年唱歌)』 제3편 하에 수록된 ‘아마토남아(大和男兒)’라는 노래이다. 역사·수신과목과 더불어 창가는 충군애국 정신 함양과 전의고양을 위한 심리적·정서적 수단으로 이용되었는데, 이런 종류의 창가와 군가는 이른바 ‘문부성창가(文部省唱歌)’라 불리는 일련의 창가를 비롯하여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VI. 맺음말

메이지기 일본의 교육, 아니 일본의 근대교육은 ‘교육칙어’ 발포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구별된다. 1880년 개정교육령 반포 이후의 수신교육(도덕교육)은 전통적 유교주의를 바탕으로 ‘충군애국’ 정신을 최고의 덕목으로 설정하며 천황제 이데올로기 강화에 부익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교육칙어’가 있었다. “신민은 지극한 충과 효로써 대대손손 천황과 나라를 위해 진력하여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이라 정의하는 ‘교육칙어’의 핵심 사상은 ‘충군애국(忠君愛國)’ 사상이다. 그리고 “일단 위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의용(義勇)을 다 하며 공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천양무궁의 황운을 부익해야 한다”고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정신을 강조한다.

‘교육칙어’ 발포 이후의 국민교육의 역할은 90%가 넘는 취학률을 배경으로, 또는 국정교과서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일본제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각인시키고, 그 정점에 있는 군의 통수권자로서의 천황의 절대적 권위와 신성 불가침성을 강조하며 ‘국체’에 멸사(滅私)하는 충량한 ‘신민’을 키우는 것이었다. ‘교육칙어’ 정신은 덕성의 함양을 최고의 목표로 하는 수신교육의 강화와 각종 학교의식에서의 ‘교육칙어’ 봉독(奉讀), 그리고 별도의 봉독회(奉讀會) 또는 암송이라는 물리적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뇌리와 신체에 각인되었다. 1890년 이후부터 1945년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 시까지 일본의 국민교육은 ‘교육칙어’를 중심으로 ‘국체사상’이라는 특정적 사유체계 형성에 기여하며 국가주의적 성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으로, ‘전의고양(戰意高揚)’의 도구로써 군국

주의 사상 형성에 부익하며 근대 일본인들의 특정적 사유체계를 형성하는 최적의 기재였다. 1931년 ‘만주사변’ 이후 아시아·태평양전쟁까지 이른바 ‘15년 전쟁’ 당시의 교육의 전쟁책임에 대해서는 별고를 통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고토 야스시 외, 이남희 옮김 『천황의 나라 일본』, 예문서원, 2006
이권희 『국가와 교육』, 케포이북스, 2017
荒井明夫 『近代日本黎明期における「就學告諭」の研究』, 東信堂, 2008
樋口雄彦 『旧幕臣の明治維新—沼津兵學校とその群像』, 吉川弘文館, 2005
柿沼肇 『國民の「戦争体験」と教育の「戦争責任」』, 近代文芸社, 2005
唐澤富太郎 外 『日本教育史』, 教育學テキスト講座 第3卷, 御茶の水書房, 1961
國立教育研究所編, 『日本近代教育百年史 1』, 1973
竹中暉雄, 『明治五年「學制」』, ナカニシヤ出版, 2013
山住正己編 『教育の体系』, 日本近代思想大系6, 岩波書店, 1990
_____ 『戦争と教育』, 岩波書店, 1997
安東忠, 「國民教育における軍事教育の形成過程」, 『教育學雜誌』, 日本大學教育學會紀要 9, 1975.3
이권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의 교육사상에 관한 고찰」, 『日本思想』 제31호, 한국일본사상학회, 2016.12,
_____ 「근대 일본의 도덕교육에 관한 일고찰—메이지 전기 교육사상의 변용을 중심으로」, 『日本研究』 제78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18.12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의 ‘學制百年史 資料編’
_____ <http://www.mext.go.jp>의 ‘學制百年史 記述編’

■ 논문접수일 : 2018년 10월 27일
심사개시일 : 2018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8년 11월 30일
게재결정일 : 2018년 12월 01일

要 旨

教育の戦争責任に関する考察

李権熙

「教育勅語」渙発以降の日本の国民教育の役割は、90%を越える就学率を背景に、または国定教科書制度を通じて学童らに「大日本帝国」という国家の正体性を不断に刻印させ、その頂点にいる天皇の軍の統帥権者としての絶対的な権威や神聖不可侵性を強調しつつ、「国体」に滅私する忠良な「臣民」を育てることであった。

本稿は、「日本の教育と戦争」という大きなテーマを設定して、1890年に渙発した「教育勅語」を中心に、「教育勅語」渙発以前と以後の日本の近代教育の国家主義軍国主義的性格に焦点を合わせてこれを通時的に鳥瞰し、自我の独立や立身出世といった私的価値を追及する一方で、天皇と国家を強く意識する分裂的思惟体系の形成、言い換えれば、忠君愛国思想を核心とする国体思想の形成といった、近代日本の公的思惟体系の形成過程に関する考察を試み、教育の戦争責任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Abstract

A Study on War Responsibility of the education

Lee, Kwon-hee

The role of education in modern Japan after the promulgation of the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have been to imprint the identity of the nation called 'The Empire of Japan' constantly on the children's mind based on the school attendance rate of more than 90%, or through the system of government designated text books, to emphasize the absolute authority and sacrosanctity and inviolability of the emperor as the commander in chief, and to raise loyal and honest subjects to nation.

This article sets a big theme of 'Education and War in Modern Japan' and has a bird's eye view of the educational situation before and after the promulgation of Imperial Rescript on Education in 1890 diachronically, focusing on Nationalism Education and Militarism Education. And it pursues the war responsibility of education by considering carefully the formation process of a schismatic thinking system that is strongly conscious of the Emperor and the state meanwhile, seeks the private value of success in life and of self-independence, that is to say the public thinking system that is state system ideology laying stress on loyalty and patriotism in modern Japan.